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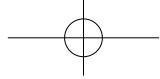
## 신임 원장으로서의 약속



1996년 설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등과학원은 설립 초기에 설정한 '세계적 연구 수행'이라는 설립 이념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세계적 연구'는 곧 '우수한 연구'를 의미하는데, 연구의 우수성은 일반 대중이나 언론이 아닌 국제적 석학들에 의해 평가받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구를 과장하지 않았고 항상 정직하게 스스로를 평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수 연구진을 유치하고 그분들이 연구기간이나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구 추진으로 고등과학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과학원 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고등과학원의 연구 성과는 세계적이지만 시설과 환경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과학원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도록 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고, 예산확보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등과학원이 연구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꿈꾸는 고등과학원은 매일 영감을 떠올리며 깨달음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영감과 깨달음이 우수한 연구로 귀결되지 않아 좌절할지라도 대화와 소통으로 치유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금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자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저부터 귀감이 되도록 애쓰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고등과학원이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입지를 다지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과학원에서 이룬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부 활동과 같이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고등과학원 구성원들과 합심하고 지금까지 고등과학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국내외 과학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등과학원이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초 이론과학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연구 환경을 점검하고 과학인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초겨울 바람이 찬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과학원 제6대 원장

김종래